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4. 30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인력육성팀장	이봉실	☎ 760-761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본격화…미래 농업 핵심 인력 육성

-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 운영과 맞춤형 지원사업 병행…자립기반 강화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수미)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스터디그룹 운영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최근 제주지역 청년농업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, 전체 농가 대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. 2024년 기준 청년농업인 비율은 약 14%로 2020년(19.8%)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초기 영농 기반 구축과 기술 습득,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.
- 이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현장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‘청년농업인 영농문제해결 스터디그룹’을 확대 운영한다.
- 스터디그룹은 작목별 재배기술을 비롯해 농업경영, 유통·마케팅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며, 참여자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.
- 지난해 청년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11회 스터디그룹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체험 교육프로그램과 교구를 개발하고, ‘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’에서 성

과를 선보였다.

- 동부농업기술센터는 기존 스타디그룹 활동과 더불어 신규 스타디그룹 1개소를 상반기까지 추가 모집 중이다. 자세한 내용은 동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.

* 동부농업기술센터 누리집: <https://agri.jeju.go.kr/dongbu/index.htm>

-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‘청년농업인 수요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사업’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- 해당 사업은 ‘청정 원유를 활용한 치즈가공 기반 조성’과 ‘제주형 ICT 스마트팜 구축 및 저탄소 농산물 인증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. 전자는 생산·가공·유통 환경 조성, 후자는 스마트팜 연계 탄소중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- 현재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, 이 중 1개소는 5월 중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. 나머지 1개소도 하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.

-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스타디그룹 운영과 정착 지원사업을 병행해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, 지역 농업을 선도할 핵심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.

- 이봉실 인력육성팀장은 “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스타디그룹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 지원사업 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”며 “청년농업인 영농문제해결 스타디그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